



핀란드의 겐트시스템과 실업보험제도

Merja Jokinen (핀란드 실업기금연합회 연구원)

■ 핀란드의 실업보험제도

핀란드의 실업 혜택은 두 가지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보험국(Social Insurance Institution : SII)이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조금과 가입자들의 소득을 보전했다가 지급하는 실업기금이다. 실업기금 가입은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조금은 실업기금 미가입자 또는 근로조건이 요구하는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실업기금에 가입하려면 먼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실업기금에도 가입하게 된다. 가입 신청을 하면 노동조합과 실업기금 가입비에 대한 징수 권한이 위임된다. 사용자는 이 위임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노동조합 및 실업기금 가입비를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핀란드에는 34개의 임금근로자용 실업기금과 2개의 개인사업자용 실업기금이 있다. 임금근로자용 실업기금은 분야별, 직종별로 나뉜다.

실업기금 수당은 핀란드 거주자이며, 고용청에 실업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조건 및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기금이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 실업자를 위한 소득대비 실업수당(earning-related unemployment allowance), 노동시장 성인직업훈련지원금, 자기계발 교육과정 중 지원받는 훈련수



당, 그리고 직업전환 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업전환휴직수당 등이다.

실업기금은 실업기금법(Unemployment Fund Act)과 실업보호법(Unemployment Security Act)에 따라 운영되고,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ISA)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다.

■ 가입조건 및 근로조건

실업기금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기금의 가입조건 및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금근로자용 실업기금의 가입조건은 최소 10개월 전에 가입해서 가입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가입자 및 고용 조건은 이보다 더 길다.

■ 근로조건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업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고용형태로 최소 43주간 유급으로 근무했어야 하며, 이때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1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실업자는 자신이 실업자가 되기 28개월 전부터 그 시점까지 근무한 총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완전고용 상태에서 지급된 임금은 관련 단체교섭조항의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위 ‘최초 조건(initial condition)’은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자와 1997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실업수당을 다시 신청할 경우, 소위 ‘재자격 조건(re-eligibility condition)’의 적용을 받는데, 최근 24개월 내에 최소 34주간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고용형태로 유급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이때 주당 근무시간은 최소 18시간이 되어야 한다. 재자격조건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근로조건 검토 기간인 28개월과 24개월은 질병, 군복무, 학생(일과 병행하지 않는), 자녀 출산, 3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이 무효가 되며, 다시 근로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실업기금에서 수당을 받지 못한다.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앞서 명시한 주당 근무시간 조건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예술 관련 분야, 또는 사용자가 노동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소득대비 실업수당

실업자가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지원받으려면 늦어도 실업자가 된 첫 날 고용청에 실업 구직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고용청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절차에 필요한 고용청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업수당은 실직한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구직자가 학생이거나 사업자인 경우엔 받을 자격이 없다. 게다가, 구직자가 고용 해지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 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 수당, 노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동시에 받지 못한다.

실업수당은 주 5일간 지급되며, 최대 500일 동안만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은 자격을 획득한 시점으로부터 7일 후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이 만료된 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았거나, 고용청이 대기 기간을 부과한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유예된다. 대기 기간은 해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제의 받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기 기간은 사유에 따라 30일, 60일, 90일로 달라진다.

노년실업자들은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500일 이후에도 추가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대비 실업수당 금액

임금근로자의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근로조건이 요구하는 최소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받은 정규 소득액을 기준을 계산한다. 그러나, 다른 EU/EEA 국가에서 근무한 시간을 고용 조건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휴일수당과 휴일보너스수당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와 함께, 임금근로자의 고용연금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이 있다. 2007년의 공제율은 4.88%이었다.

일반적으로 받는 실업수당 외에도 특별한 경우 지급되는 확대실업수당이 있다.

- 신청자가 정리해고를 당한 후 3년간 고용상태로 있는 경우, 재고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용



청의 승인하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고용계약이 만료됐고, 최소 20년 전에 연금에 가입했으며, 최소 5년 전에 실업기금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수당도 연장해서 받을 있다 (확대 소득대비 수당).

■ 실업자의 불안전고용

불안전하게 고용된 사람들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액을 고려한 실업수당 조정액이 지급된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포함해서, 유급노동으로 받은 모든 소득을 고려해서 계산된다. 신청자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동안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실업기금에 신고해야 한다.

실업수당 조정액을 받기 위해서는, 총 근무시간이 정규 직원의 최장 근무시간의 75%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실업수당 조정액은 완전 실업자라면 받았을 완전 소득대비 실업수당에서 조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다.

■ 기타 수당에 따른 영향

다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업기금에서 받는 수당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수당에는 실업기금 수당을 전액 제한하는 수당, 실업기금 수당 중 일부 금액만 받도록 허용된 수당, 실업기금 수당 전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수당 등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실업기금 가입시, 받고 있는 수당에 대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1) 실업기금 전액을 제한하는 수당 : 각종 연금, 병가수당 및 부분 병가수당, 출산수당, 배우자 출산수당, 재활수당.
- 2) 실업기금 수당 중 일부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 : 부분 장애인연금, 가정육아수당.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가정육아수당은 가족 특별수당이다 :
 - 한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고 가정육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실업상태인 배우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받는다.
 - 부부가 모두 실업자이고 실업기금을 받고 있다면, 가정육아수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실업

수당에서만 가정육아수당 금액만큼 공제된다.

- 배우자가 육아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육아를 담당하는 배우자가 받고 있는 가정육아수당이 배우자의 실업수당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은 공제되지 않는다.

3) 아동수당, 주거수당, 생존연금 및 생활수당 등은 실업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용 실업기금에서 지급하는 소득대비 실업수당

개인사업자가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은 개인사업자용 실업기금에 가입한 상태로 사업자로서 2년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48개월의 검토 기간 이내에 개인사업자로 24개월 이상 근무하고, 최소 연간 소득 8,520유로에 대한 자영업자 연금보험(Self-Employed Persons' Pension)에 가입했다면 근로조건을 충족한 셈이 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기본수당에 상응하는 기본총액, 소득대비부분,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소득대비부분의 금액은 개인사업자가 실업보험의 기본 금액으로 정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의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최대 500일 동안 지급된다.

■ 노동시장 지원금 (Labour Market Support)

고용청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고 있다.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실업자는 고용청에 이를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청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고용청이 마련한 '노동시장 성인교육 (labour market adult education)' 을 받는 경우, 교육이 시작 되는 시점에 가입조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실업기금에서 소득대비 실업수당에 상당하는 훈련보조금을 교육기간 동안 지급하고 있다.

노동시장 지원금과 함께 비과세 유지비가 노동시장 성인교육 기간 동안 제공된다. 유지비를 지



급하는 목적은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훈련수당

실업자가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자의로 신청한 경우, 직업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가 받은 실업수당에 상응하는 훈련수당을 훈련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은 국가의 감독을 받는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상 필요한 기술을 증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어야 하며, 최소 20주 동안 중단 없이 전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훈련수당을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자가 고용청에 실업 구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훈련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총 65일간의 실업수당이나 노동시장 보조금을 받았거나, 근로자연금법(Employees' Pension Act)에 따라 최소 10년간 고용상태로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훈련수당은 수업이 없는 날을 포함해 주 5일간, 최대 500일까지 받을 수 있다. 훈련수당을 받은 일수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500일에 포함되게 되며, 실업수당과 훈련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65일이다.

직업전환수당

직업전환이란 정규 직원이 사용자와 합의하여 직업전환휴가를 받는 대신 사용자가 고용청에 구직자로 등록된 자를 정해진 기간 동안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전환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연금법(Employee's Pension Act)에 따라, 직업전환휴가가 시작되기 전 최소 10년간 고용상태로 있었어야 하며, 직업전환휴가가 시작되기 전 최소 1년 동안은 같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었어야 한다.

직업전환수당의 금액은 해당자가 실업상태였다면 받았을 소득대비 실업수당의 70%이다. 직업전환휴가는 최소 90일간의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90일 단위로 나눠서 최대 35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수당 신청

실업기금은 실업자의 첫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실업수당 서면결정서와 지급통지서, 그리고 추가 신청양식을 송부해야 한다. 실업기금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청구자는 서면결정서에 첨부된 지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실업보험항소위원회(Unemployment Security Appeal Board)를 통해서 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보험법원(Insurance Court)에 회부될 수 있다.

실업수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었거나, 과도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실업기금의 결정을 수정하고 수당은 반환된다.

만약 수당을 신청한 자가 자신의 고용상태, 해외체류, 개인사업, 사회보장혜택 수혜 등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실업보험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실업기금은 이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보내라고 통보하거나 주의를 줄 수 있고, 더 나아가 실업기금 가입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실업기금은 수당 신청과 관련된 모든 고의적인 행동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 소득대비 실업수당 계산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기본 수당, 소득대비 부분,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보조금으로 구성된다.

- 1) 기본 금액은 일일 기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07년 일일 기본 수당은 23.91유로이다. 일일 기본 수당은 국가연금 지표에 따라 결정된다.
- 2) 육아수당은 2007년 현재, 자녀 1명인 경우 4.53유로, 2명인 경우 6.65유로, 3명 이상인 경우 8.58 유로이다.
- 3) 소득대비 수당은 신청자의 일급의 최대 90%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기본 수당에 육아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 4) 임금근로자의 고용연금보험금과 실업연금보험금은 소득에서 소득대비 수당 금액을 산출하기 전에 공제된다. 2007년 공제 항목 금액은 4.88%이다.
- 5) 소득대비 부분은 신청자의 일급과 기본 금액의 차액의 45%이다. 단, 월급이 2,151.90유로(기



〈표 1〉 몇 가지 예 (육아지원금을 제외한)

월 급	수 당		월 기초 생활 보조금과의 차액
	EUR/일	EUR/월	
1,000	33,06유로	711유로	514유로
1,500	43,01유로	925유로	514유로
2,000	52,97유로	1,139유로	514유로
2,500	60,29유로	1,296유로	514유로
3,000	64,72유로	1,391유로	514유로

본 수당의 90배가 넘는 금액)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소득대비 부분이 된다.

- 확대 소득대비 부분은 일급과 기본 수당의 차액의 55%이며, 제한 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는 32.5%가 적용된다.

- 재고용 프로그램 지원금의 경우 소득대비 수당은 일급과 기본 수당의 차액의 65%이며, 제한 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는 37.5%가 적용된다.

6) 실업수당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즉 개인 과세율의 세율에 따라 세금이 공제된다.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수당세에 관한 세금 카드를 받아야 한다.

핀란드의 평균 임금은 대략, 월 2500유로이다.

■ 기금 조달

실업수당은 국가, 실업기금,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서 지원하고 있다.

- 국가는 23.91유로의 일일 기본 수당 금액을 지원한다

- 실업기금이 수당의 5.5%를 지원한다

- 나머지는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서 부담한다. 실업보험기금의 자산은 사용자와 임금근로자들로부터 징수한 실업보험료에서 기인한 것이다. 사용자들이 지불한 실업보험(2007년)은 급료지불 총액 840,940유로에 대한 총 소득의 0.75%이며, 840,94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2.95%이다. 임금근로자의 실업보험료에 대한 기여 비율은 임금의 0.58%이다.

2005년 실업수당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

- 국가 39.8% (680,602백만 유로)
- 실업수당 5.3% (90,105백만 유로)
- 실업보험기금 55% (940,591백만 유로)

■ 실업기금 가입비

실업기금 가입은 선택사항이다. 가입비는 실업기금에 따라 다른데, 가령 지점별 임금수준과 실업률에 따라 달라진다. 연평균 가입비는 65유로이다.

■ 핀란드의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의 역할

핀란드에서는 3자간의 협정을 통해 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입안한다. 주로 노동시장 조직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정부도 개입하고 있다. 거의 80%의 근로자들이 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매우 중요하며 구속력을 갖는 약 70개의 직종별 노동조합이 아래의 3개 중앙연합회 산하에 존재하고 있다 :

핀란드 중앙노동조합연합회 'SAK' (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AK는 산업부문, 공공부문, 교통 및 민간서비스 부문 등 21개 노동조합의 연합체이다. 각 노동조합의 회원수는 100만 명 이상이며, 홈페이지는 www.sak.fi 이다.

핀란드 임금근로자연합회 'STTK'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19개 가맹 노동조합이 약 650,000 전문직 종사자를 대표한다. 가맹 노동조합들은 산업부문, 민간서비스 부문, 지방 및 지역정부, 중앙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을 결성한다. 간호사, 기술 엔지니어, 경찰관, 비서, 연구원, 영업직 종사자 등이 회원이며, 홈페이지는 www.sttk.fi 이다.



핀란드 학계 전문가노동조합연합회 'AKAVA' (Confederation of Unions for Academic Professionals in Finland)

AKAVA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연합회로, 31개의 가맹 노동조합에 461,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www.akava.fi 이다.

위 중앙노조연맹들은 사용자 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정책 관련 협상을 한다.

핀란드 산업연합회 'EK'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는 35개 지점에 16,000개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사용자 중앙기관이다.

■ 현재 상황

핀란드는 일반소득 관련 정책에 있어 합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가로 유명하다.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들은 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다. 올해는 노사단체들이 일반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노동조합들이 산별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합의 사항은 부문별로 다를 것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8~10% 인상이 예상되나 공공부문은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새 정부는 간호사의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약속했었고, 간호사노동조합도 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10%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공공부문은 정부 소관인데, 정부는 세수입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핀란드는 세금과 공공부문 서비스 수준이 높기로 유명하다. **KLI**

관련 웹사이트

- 핀란드 실업기금 연합회 (Federation of the Unemployment Funds in Finland) www.tyj.fi
- 사회복지건강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www.stm.fi
-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 : www.tvr.fi
- 보험감독원(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 www.vakuutusvalvonta.fi